

MUJINE

Heritage

12

DECEMBER 2014

신형철의 정확한 사랑이 한일
타히티, 또는 잠시

HEARTFELT GIFT
EXPRESS HOLIDAY
ARABIAN WAVE



TIFFANY & CO.

NEW YORK SINCE 1837



현실도 꿈도 넘어서

〈아시아 현대사진: 왕칭송·정연두〉
대구미술관, 2014-2015

대구미술관에서는 지난 9월 20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한국과 중국을 각기 대표하는 현대예술 작가인 정연두와 왕칭송의 전시를 열고 있다. 아시아라는 이름으로 지리적, 문화적으로 연결된 한국과 중국의 현대사진을 다루며 보다 폭넓은 이해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자 기획된 것이다. 급변하는 중국사회를 냉소적으로 풍자하는 작가인 왕칭송은 자신의 모습을 디지털로 합성해 작업한 것을 비롯해 16점의 작품을 전시했다. 특히 현대사회의 광고 홍수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작품인 'Soriasis'는 한국어로 된 전단지들을 제작해 설치한 것. 다소 대조적으로, 정연두는 사람들의 평범한 꿈과 소망을 작품 속에서 현실화시킨 작업들을 소개한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사는 32가구의 가족사진을 담은 '상록타워'와 아이들의 그림을 사진으로 재현한 '원더랜드'는 삭막한 현실의 끝자락을 붙들게 하는 휴머니즘을 담고 있다. 이번 전시는 인간에 대한 관심과 우리가 사는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초점을 두고 보면 더욱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김선희 대구미술관장은 권한다.

